

『나는 결혼할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수술후 마취에서 깨어난 어머니가 울해가 가기 전에 꼭 며느리를 보는 게 소원이시라니 결혼합시다』

유럽에서 10년 유학생활동을 하기도 해서 상당히 세련된 구혼의 말을 할 줄 알았던 남편 安炳茂박사(69·한신대 명예교수)의 청혼은 의외로 촌스러웠다고 회상하는 朴英淑 신민당 최고위원(59)。

그러면서 남편이 덧붙였던 말은 『결혼후 여자가 남편이나 기다리는 해바라기형이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결혼 후에도 내생활을 계속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외에는 외조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었다는 게 당시 朴최고위원의 결혼생활에 대한 생각이었다.

38세에서 이를 모자란 37세 겨울 막바지, 다른 친구들은 육아의 책임에서도 거의 벗어날 무렵에 결혼한 朴최고위원은 남편이 보기와는 달리 상당히 가정적이라는 걸 발견했다.

『그런데 우리집 애기가 빠는 나를 학생취급을 해요』

오랜 교수생활때문인지,

**내조
외조**

安 炳 茂
<한신대 명예교수>

朴 英 淑
<신민당 최고위원>



10살차이...서로 「내 生活」 존중

10살 연상이라는 나이차 때문인지, 아직까지도 이들 부부싸움의 형태는 선생님이 아단치고 학생이 듣는 듯한 모양이란다.

특히 朴최고위원 본인 표현대로 「지나치게 사무

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을 많이 받곤 하는데, 고쳐질 때까지 열번 스무번 되풀이해서 달라질 때까지 지적지도 않고 충고를 했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가까이서 朴최고

위원을 보게 되면 TV화면에서 만나는 것보다 훨씬 다정다감한 사람임을 느끼게 된다.

늦게 얻은 외아들교육에 관한한 安박사의 외조는 놀라울 만하다.

서너살된 어린아들이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해달 때, 朴최고위원은 두세번째면 귀찮아지곤 했는데, 安박사는 아이가 지칠 때까지 말상대, 놀이상대가 되어 주었다.

그렇게 자란 아들은 아빠를 닮아서일까.

바쁜 엄마를 둔 덕에 아침에는 차 한잔이 전부이고, 도시락도 못싸들고 학교에 가지만 엄마를 『늘 열심히, 성실히 사는 여성』으로 인정해 준단다.

아내노릇 중, 정치가와 목사의 아내만큼 힘든 게 없어 보이는데, 정작 본인이 정치인이 되고 보니 남편한테는 미안한 게 한 두가지가 아니다.

이제 학문을 총정리할 성숙 단계에 접어든 남편 건강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는 점이 늘 마음에 걸린다는 朴최고위원의 눈가에 언뜻 연민이 스친다.

<康愛眞>